

사회자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 지 원*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시간강사)

이 기 영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건강은 복지의 중요한 척도이며,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건강을 포함한 인적자본의 형성에 기여한다. 본 연구는 가족자원으로서 사회자본의 개념을 소개하고 인적자본 형성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를 건강에 대한 영향을 통해 설명하였다. 분석을 위해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한 제7차 한국노동패널의 개인 자료 가운데 65세 미만 인구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자본의 통계분석을 위해 SPSS (12.0)이 사용되었다.

연구모델은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델 (n=10115)과 취업자 집단의 성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남성취업자(n=3577)와 여성취업자(n=2724) 모델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건강상태이며, 독립변수는 사회자본 변수로서 사회적 관계만족도, 사회자본에 대한 시간투자, 가족체계 등을 측정하였다. 사회적 관계는 가족관계 만족도, 친족관계 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등이 포함되었으며, 취업자 모델에서는 직무관련 인간관계 변수가 추가되었다. 사회자본에 대한 시간투자 변수로는 평일, 토요일, 일요일의 봉사활동시간과 교체활동시간이 포함되었다. 가족체계는 혼인상태로 측정하였다. 이외에 성별, 연령, 지역, 교육수준, 취업여부 등의 통제변수가 포함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사회자본은 건강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 만족도, 친인척관계 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등의 사회자본변수는 건강상태와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평일과 토요일의 교체활동시간은 건강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자 집단에서 사회자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성차를 분석한 결과 남성취업자와 여성취업자 모두 친인척 관계, 직무관련 인간관계 만족도가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남성취업자와 달리 여성취업자의 경우,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건강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여성취업자의 교체활동시간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나, 남성취업자의 경우 평일과 일요일의 교체활동시간은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건강에 기여하는 가족의 사회자본 증진을 위해 가족복지 정책을 논의하였다.